



제 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대 회 사

오늘은 우리 농업기술자협회가 50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1960년, 부산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하여 반세기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개최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 국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여 주신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항시 후원하며 함께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님 여러분과 농민단체장님들에게도 10만여 선도농가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년전, 이 대회를 만들어 주관하시고 50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정장섭 고문님을 비롯한 고중덕, 남상돈, 강희구, 이계조, 박덕준, 장원호, 강춘성 유공원로회원님과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선도농가 회원동지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6.25전쟁으로 국가경제가 피폐해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1960년 10월 독농가, 농업기술자, 농촌지도자들이 자주·자립하자며 자발적으로 모여 과학영농으로 증산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하여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횃불을 높이 들고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날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이룩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내신 주역들이십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 교수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많은 학자들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해 왔고, 이미 세계 각국의 식량자원 확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은 이제 식량자원을 넘어 에너지자원으로 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농업의 국제개방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농업·농촌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보다는 피해부문 보전이나 시혜성 정책으로 모면하려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농업환경 및 향토자원의 파괴,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영농인력의 감소, 농업개방과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가부채 증가와 농촌경제의 악화 등 현실은 우리농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 식량자급율은 점점 떨어져 26% 수준에 와있고, 농산물의 70%이상이 수입되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산 저가 농산물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식품문화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 건강보장과 건전한 식품조달도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불임문제, 매년 5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아토피성 환자, 위암환자의 증가 등 각종 질병원인은 불량 농산물과 식품, 식문화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농업·농촌·농민 문제, 국민식량 주권의 붕괴와 건강위험문제는 이제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국가 보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선도농가는 시대 흐름이나 개방의 파고가 아무리 높고 거셀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준비하여 도전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와 역량을 갖고 있으며, 도시민·소비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훌륭한 상생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농업·농민의 어려움을 나누려는 애향심과 농업사랑, 농촌사랑, 농민사랑 정신으로 함께 하는 길, 이것이 바로 국민농업운동의 기반이며 도농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잘사는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협회는 1964년부터 실시해 온 각종 농민대

학이 이론·실습교육 수준에 머물었으나 보다 전문화하고 역량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인사 관대학을 만들어 농업·공학·식품 융합형 농산업의 틀을 디자인하여, 우리 농업·농촌·도시·소비자와 공유하는 도농상생형 농촌개발을 선도하고자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의식선진화와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농업인의 평생교육으로 역량을 한층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인 정예화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도제식 교육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춘 우리협회가 중심이 되어 농업인의 도제식 훈련교육을 통해 한국농업기술을 선도하고 역량 있는 농업인을 길러내고 전농업인을 결집한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일류국가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회원동지 여러분과 합심하여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세 일즈맨이 되겠다”는 각오로 시대정신과 시스템의 선진화를 마련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내외 귀빈과 원로·유공회원님 그리고 정부포상 및 각종 수상자와 유관단체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선후배 회원동지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의 기수 여러분!

여러분은 멋져! 당신이 최고야! 국민농업운동에 함께하여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기수가 됩시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농업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㉞

2009년 11월 25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윤 천 영

제 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건의문

전국의 10만 선도농가들로 구성된 우리협회는 수입개방화와 생산비 원가폭등 등 대내외적인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농촌경제와 농업기반의 붕괴위험을 막고 외국산 농산물의 식탁점령과 전통적이고 건강한 식사문화의 붕괴를 막아내어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통해 다음 사항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풀어가려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지양하고 농업과 제조업, 농민과 도시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라는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 성장격차 해소와 균형성장을 위한 배분과 배려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투입증대로 인한 농업환경의 파괴와 위해농산물의 무차별 수입과 생산에 따른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성 위협 등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의 확고한 정책기준과 국민건강 먹을거리 공급체계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 국민식량주권확보와 생산기반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면적의 논농사 보장대책을 확립하고,

논농사의 환경보존 지원방식에 의한 쌀 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우리의 주식인 쌀의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정책 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 농어촌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영농기피·농업계 학교의 쇠퇴화 등 농업인력 부족과 농업교육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령농가의 경영이양이 후계자 양성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농업인사관학교식 현장 교육기능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 헌법 제 123조 5항에 보장된 농민의 자조적이고 법적인 정책참여와 산업 활동보장을 위해 “농업회의소”설립을 지원하고 농협개혁 등 주요 농정결정을 농민의 자주적 활동으로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섯째 : 앞으로 농업은 국가자존산업으로, 농촌을 국민활력 재충전의 공간으로, 농민을 농촌 전통문화의 파수꾼이며 파트너로서 도농상생의 국민농업으로 이끌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11월 25일

제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자 일동

제 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결의문

지금 우리농업은 농산업 지배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계적 글로벌 농기업들과 농업 강대국들의 국제무역기구를 통한 농업 개방 압력으로 농업생산의 국제적, 지역적 분업화 구조재편과 유통구조 재편에 편입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제조업과 무역 등 타산업 분야에서는 무역 자유화의 유리성을 내세워 농업부문의 위기를 단순한 농업·농촌·농민의 피해로만 해석하여 일시적인 보상과 달래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식량주권 상실과 먹거리 안전성의 붕괴 등 국가안위가 걸려있는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한국농업의 근대화를 주도하고 농업기반 사수에 앞장서온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0만여 회원 일동은 제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하여 한국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지금의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농업 존폐의 문제뿐 만 아니라 국민식량주권과 국가자존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둘째 :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시장논리로 해석하려는 정책이나 타산업 부문의 이해를 추구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강화토록 하는데 적극 앞장서서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 안전한 국민 먹을거리의 생산을 위해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를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며 고품질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넷째 :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해 도제식 훈련기관인 농업인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현장 교육 등 후계 농업인 양성에 주력할 것이며, 농업인의 자조적 활동과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다섯째 : 앞으로 우리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로 단합하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11월 25일

제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참가자 일동